

NO.1 KOPEC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사업관리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NO.1 KOPEC!
여러분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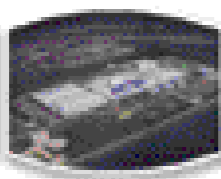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교통부와 CM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2003년도 CM 수행능력 평가에서 KOPEC이 당당히 최우수업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인력 그리고 KOPEC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관리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종합 설계에서부터 시공, 구매, 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및 건설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건설공사의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생애주기를 KOPEC이 책임집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고속철도



영주신제 조창



인천국제공항



June

올봄에 심은 콩 한알, 작은 떡잎 달고 솟았는가 싶더니

가는 줄기 힘차게 위로 꼬아올라 흰꽃망울 맺었다.

그 꽃 스러지더니 이내 콩꼬투리 매달려 여물어간다.

하나, 둘, 셋..... 그 안의 콩 몇 개일까 벌써 궁금하다.

Contents

2007 KOPEC FAMILY

- 4 K-Message | 신성장 동력의 주역, 환경기술
- 6 KOPEC NEWS | 중국 원전건설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외
- 10 테마기획 - 세계속으로 | 갖가지 이야기가 서린 프랑스 서부 해안지방
- 14 생활과 과학 | '세컨드 라이프'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라
- 16 웰빙 KOPEC | 산채, 막국수, 마늘밥, 농치고 싶지 않은 6월의 별미들
- 18 도전 IT전문가 | PC를 손바닥에
- 20 Teamwork | 정보회추진처 경영정보시스템팀
- 24 KOPEC 문예 | 제17회 한기문에 가작
- 28 Benchmarking & Globalization | FDIC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 30 우리가족 만세 | 사업관리기술처 임위등 차장 가족
- 32 지상전시회 | 잊을 수 없는 기억 :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러시아인 페인팅
- 34 경제를 보는 눈 | '고성장 잔치'는 끝났다
- 36 건강 100세 | 병 주고 약 주는 스트레스
- 38 문화의 산책 | 알파 걸, 그녀들의 도전
- 40 Radar | 한국표준형원전 세계 최고 인정 외
- 42 InsideOutside | 서울동정 외
- 45 Information | 영화 '검은집' 외
- 46 퀴즈한마당 | 틀린그림 찾기 외
- 47 밑줄긋기 | 끝발의 행복



Cover Story | 촬영 : 홍보실 김종학 사진기자

품질보증처 김응조 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공항철도(AFX) 중 우리회사가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1단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구간의 개통식에서 공항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KOPEC FAMILY" | 2007년 6월호(통권 305호) | 발행일 2007년 6월 15일 |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 발행인 임성춘 | 발행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 전 화 031-289-3114 | 홈페이지 www.kopec.co.kr | 인 쇄 길성인쇄(02-2279-8044)

신성장 동력의 주역, 환경기술



지나온 성장과정을 되새기며

KOPEC에 환경기술부서가 생긴지도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었지만 명실공히 기술부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데에는 당시 경영진들과 선배들의 미래에 대한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환경기술부서는 환경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주업무로 하는 직원 10여명의 그야말로 초미니 부서였습니다. 이후 발전소 탈황·탈질설비, 그리고 오·폐수처리설비 설계업무와 환경설비 시공까지 수행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이제는 완벽한 턴키사업 수행체계를 갖추기에 이르렀으며, 회사내 환경관련업무 중사자를 제외하고 환경기술실 직원만 40여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제도 정비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겠으나, 부단한 기술개발과 사업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준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며

지금 세계 환경시장은 7,000억 달러 규모이고, 우리나라의 환경시장도 2005년을 기준으로 18.6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액의 2~3%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연평균 12%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국내 대부분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설비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특허 취득, 신기술 검증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고, 사업영역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크게 넓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립가스(LFG) 발전소와 같은 신규 사업영역에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발전회사들을 비롯한 고객들의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째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성과물의 품질을 중시하고 공익적 마인드와 윤리의식을 체득하고 있다는 점, 둘째 환경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 보유와 관련기술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셋째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환경설비 설계·시공 및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미려하지만 환경기술실은 그동안 전력산업 환경기술 자립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왔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그러나 지식산업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 발전소 건설물량의 축소와 민간기업 육성 및 가격경쟁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는 늘 우리가 더욱 새롭고 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우리는 국내 대부분 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설계하면서 갖게 된 우리의 기술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특히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거나 자만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공기업 특성상 유연성과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는 않았는지,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읽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앞서서 리드해 나가야만 고객을 우리 편에 묶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신규 사업영역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환경사업이 앞으로 우리 회사 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전략(2006년 10월)에서 밝혔듯이 환경사업은 매출구성비가 2005년에 4%에서 2011년에는 10%로 우리 회사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환경사업은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외 환경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망 환경사업중에서 온실가스 저감설비, 중수도 설비, 그리고 오염토양 복원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들 사업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확보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설계·시공 턴키사업 수행체계를 보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자긍심이 생기고 의욕이 앞서는데에는 그동안 훌륭한 선배들과 그 분들을 따라 열성을 다해 온 동료,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평소 저 자신이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몇 가지들을 이 지면을 빌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과 경력을 쌓는데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인재상은 어학능력은 물론 다국 문화를 가진 여러 참여기술자들을 통솔하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회사는 매우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성과를 이끌어 낼 때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그럴 때에만 확실히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셋째, 표현력과 설득력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자신의 의사를 짧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넷째,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약한 모습으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맑고 밝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끔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회사가 "One of the world best"에 머물지 않고 "World only"로 도약하는데 우리 모두 주역이 되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김부한 / 환경기술실장



중국 원전건설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중국 원전건설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중국 광동핵전집단유한공사(CGNPC)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원전건설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하여 (주)파워빌트건설링사와 지난 5월 21일 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주)파워빌트건설링사는 CGNPC 및 CNPEPC 고위간부들과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우리회사가 LingAo 2단계 원전설계에 기술인력 파견 및 패키지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이에 CGNPC 산하기관중 가동중인 원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DNMC사 및 신규로 흥옌허 원전복제설계를 위해 설립된 CNPDC 등이 CNPEPC사 및 (주)파워빌트건설링과 우리회사의 관계를 도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희망하여 향후 건설될 원전설계 참여를 확대코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UN 등록



우수 지식활동 포상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에코프론티어(주)와 공동으로 최초 수행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 사업이 지난 4월 30일 UN에 공식 등록되었다. 이로써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발판 및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탄소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 지식활동 포상

2006년도 지식활동 우수그룹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8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에는 지난 한해의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 기술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 스페셜리스트, 우수 스테디그룹, 우수 지식등록자료, 우수 표준기술 기준 배경기술서 작성, 누적 지식마일리지 등 총 5개 부문을 시상하였다. 부문별 영예의 최우수상은 건축기술처 이철우

차장(우수 스페셜리스트), 도장설계 스테디그룹(그룹장 이철우 차장), 토목기술처 문일환 차장(우수 지식등록자료), 기계기술처 이창남 차장(우수 표준기술기준 배경기술서 작성)이 차지하였고, 300점 이상의 누적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상배 차장 외 3명에게는 지식마일리지상이 수여되었다. 이 시상은 적극적으로 지식경영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지식 품질향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우수그룹과 우수직원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우수 기술개발과제 포상

지난 5월 8일 경영회의 석상에서 2006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를 포상하였다. 기술개발 참여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번 포상에서는 2006년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 2단계 평가를 거쳐 '디지털기반 첨단 인간-기계연계 설계 및 검증'을 위



우수 기술개발과제 포상

한 동적모의설비 개발(계측제어기술처 최문재 부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 'PIPSYS/Window 프로그램 개발(배관기술처 신중교 부장)', '가동원전 중 KSNP의 일체형원자로 상부구조물(IHA) 설계기술 개발(원자로계통기술처 김현민 부장)의 2개 과제가 우수상을, '계약클레임 사례집 작성(사업관리기술처 오명갑 부장)', '기계계통 설계 계산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기계기술처 김재호 처장)', 'Reactor Coolant Pump Seal Integrity Monitoring System 개발(원자로안전처 이송규 차장)의 3개 과제가 장려상을 받는 등 총 6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우수 과제책임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포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ICAPP 2007 전시회 참가

ICAPP 2007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가 프랑스원자력학회(SFEN: French Nuclear Energy Society)주관으로 프랑스 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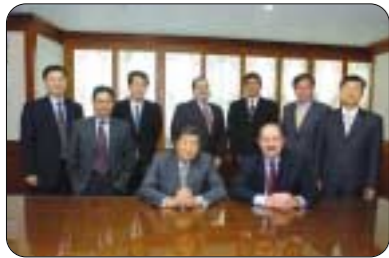


ICAPP 2007 전시회 참가

에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려 우리회사에서 조종연 부장 등 3명이 컨퍼런스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같이 열린 전시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주)와 함께 공동전시관을 개설하여 APR1400 설계기술 및 개발 경험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국 원전의 자세한 현황을 모르는 여러 유럽국가의 전력업체, 연구소, 학교로부터 특히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ICAPP 2007 국제회의에는 4개 대륙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여 총 4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전시회에는 아레바, 웨스팅하우스, 미쓰비시 중공업, EDF, SUEZ 등 약 28개 기관이 참가하여 활발한 홍보전을 펼쳤다.

개선제안 특별공모 포상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개선제안 특별공모 결과 '실시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공유 교환'(정보화추진처 김영훈 차장 외 6명)이 최우수제안에, '플랜트/발전소



신고리3,4 국외하도급 자문계약 협상



제1차 단체교섭 개최

공정개발 사업관리용 프로그램 개발 (사업관리기술처 정인철 차장) 및 '벨브제작지시서(RTM) 발행 이후 설계정보 변경사항 관리방법 개선 (배관기술처 김용환 차장 외 3명)이 2,3위 제안에 선정되었다. 또한 품질보증처 이진호 대리과 원자로안전처 백주현 상무가 최다 제안 1,2위를, 기획처, 기술관리처, 원자로안전처가 제안참여자 수로 선정하는 부서포상 1,2,3 등을 각각 차지하였다. 직원들의 창의와 연구를 장려하고 회사의 제반 업무에 대해 직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전원 참여 경영을 실현하고자 실시된 이번 특별 공모에는 개선보고 34건, 개선의견 462건, 총 496건이 접수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지난 5월 14일과 15일 총 37건의 개선보고에 대한 개선제안 심의 소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25건(채택율 67%)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선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전원에게 제안참가기념품으로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한 회사 배지 착용 캠페인과 연계하여 18K 금으로 특별 제작

한 회사 배지를, 제안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앞으로 제출된 제안을 적극 시행하여 업무 개선과 경영혁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제안 운영시스템 및 여러 가지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원을 통하여 직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고리3,4 국외하도급 자문계약 협상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Bechtel사 부사장인 Mr. Steve Veale 일행이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신고리 3,4 국외하도급 자문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양사간 사업개발 전략적 제휴를 위한 MOU와 Counter Trade 계약을 함께 협의하였다.

제1차 단체교섭 개최

2007년도 제1차 단체교섭이 지난 5월 7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단체교섭에는 사장 및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사 양측의 단체교섭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교섭 안전으로 노사 양측의 2007년도 임금협약(안)이 상정되었다. 노사는 작년부 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성협약임금제에 기초하여 금년도 임금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금호 TDF 연소 열병합 발전소 착공식 참석

페타이어를 연소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금호 TDF(Tire Derived Fuel) 연소 열병합 발전소 착공식이 지난 5월 9일 여천공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부지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김철수 플랜트사업단장이 참석하였다. 이 발전소는 국내에서 최초로 페타이어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로서 우리회사에서 그동안의 여러 발전소 설계 경험을 살려 설계를 맡았다. 발전소는 200t/h 보일러 2기 및 119MW 증기터빈이 설치되어 타이어 시편(3~5cm 정도로 절단된 타이어 조각)을 석탄과 혼소하여 이용한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페

타이어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를 재생연료, 재생재로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승 추세에 있다. 현재 연간 페타이어 발생량은 약 2500만개로 추정되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토목공사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열이용 부문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물량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페타이어는 주로 고무분말이나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열이용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이번에 착공한 금호 발전소처럼 발전설비의 연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두산중공업과 제4차 Management Workshop 개최

원자력사업단과 두산중공업 원자력 BG간의 제 4차 Management Workshop이 지난 5월 25일에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회사 원자력사업단장과



두산중공업과 제4차 Management Workshop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함양을 위한 와인강좌 개최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을 비롯하여 양사의 원자력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올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협력방안, 신고리 3,4호기 Fuel Rack 일점 협의, I&C 담당 소개 및 Nu-Tech 2015 협력방안(이상 두산중공업), 주유기기 교체관련 협력방안(II), Paperless설계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소개(이상 KOPEC) 등 총 5편에 관하여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각 주제별로 상호 관심사항과 양사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함양을 위한 와인강좌 개최

지난 5월 11일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매너 함양을 위하여 임원, 부서장 및 주요 사업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인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와인강좌는 와인나라 아카데미 최해숙 소믈리에*를 초청하여 2시간에 걸쳐 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와인 매너를 익힌 후 시음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우리회사의 특성상 사업 책임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고급문화인 와인을 음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상시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혁신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변화경영 및 기업문화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전문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소믈리에(Sommelier : 프) : 포도주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직업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 영어로는 Wine Captain 또는 Wine Waiter라고 함.

갯가지 이야기가 서린

프랑스 서부 해안지방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젊은 여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프랑스, 질푸른 바다와 멋진 해변으로 유명한 코트다쥐르 지방을 필두로 수많은 고성인 즐비한 루아르 지방, 그리고 알프스 최고봉이 자리한 샤모니 몽블랑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발걸음을 붙드는 프랑스이나 대서양을 따라 이어지는 서부 해안지역은 특하나 드라마틱한 풍경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01



03



02

30대 미망인 아누크 에메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딸아이를 만나려고 도빌에 갔다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장 루이 트랭티낭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는 영화 남과여.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솔직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것처럼 도빌 해변 풍경은 이웃해 있는 노르망디와 달리 휴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아 보인다.

도빌 해변에서는 어느 곳과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접할 수 있다. 말을 타고 파도 사이를 질주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마상경기에 대비하여 연습에 매진하는 선수도 보인다. 물론 한적하게 바닷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남녀와 가족 단위로 찾은 방문객이 훨씬 많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도빌 해변을 찾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영화 남과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도빌 해변에는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영화상에 빛나는 '남과여'의 흔적이 배어 있다.

도빌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한번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영화제다. 매년 여름에 벌어지는 도빌 영화제는 그역사나 작품의 수준에서는 지중해 연안에서 열리는 칸느 영화제에 비교할 수 없지만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로 한적하게 영화의 참맛을 느끼려는 마니아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사이다.

도빌이 사고와 영화로 상징되는 장소라면 우리에게겐 조금은 생소한 옹플레르(Honfleur)는 프랑스에서는 제법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는 장면이 지금도 자주 회자되는 영화 <남과여>의 무대 도빌.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카지노 그리고 여름이면 지구촌 영화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화제로 명성이 자자한 도빌(Deauville)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휴양과 문화도시다.

어느 정원이 연상될 정도로 잘 가꾸어진 시청광장, 저마다 집주인의 개성이 감지되는 독특한 주택들, 그리고 어느 영화에선가 본 듯한 골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도빌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서부해안 최고명소 중 한 곳이다.

특히 영화 남과여의 무대이자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린 등대가 우뚝 서 있는 해변을 빼놓을 수가 없다. 끝이 안보일 정도로 펼쳐진 모래사장과 어우러진 풍경은 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 01 노르망디 최고 볼거리인 노르망디 해안을 찾는 가족.
- 02 영화 남과여에서 두 주인공이 걸어 갔던 도빌의 등대.
- 03 영화 남과여의 배경이자 영화제의 고장으로 유명한 도빌 전경.
- 04 도빌 시내에 자리한 액세서리 공방.
- 05 도빌의 한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라보는 이들.



04



05

유서 깊은 항구이자 예술의 도시로서 명성이 높다. 17세기부터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던 옹플레르가 예술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 이곳에서 태어난 풍경화가 '외젠 부댕'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옹플레르에서 태어나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외젠 부댕은 당시 가장 의욕적으로 창작활동을 했던 세잔,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수시로 옹플레르의 농가에 모여 창작활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모여 창작열을 불태웠던 농가는 현재 호텔로 개축되어 많은 미술 애호가와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잔 등은 수시로 옹플레르의 항구 풍경을 화폭에 담았으며 이런 까닭으로 훗날 수많은 무명화가들이 이곳을 찾아 자신의 꿈과 희망을 걸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옹플레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가와 조각가의 작업실과 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갤러리가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그 숫자가 자그마치 수백 곳에 이른다. 한 집 건너 한집이 갤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옹플레르답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림 같이 아름다운 항구와 도시를 구경하는 것 외 상당수가 미래의 유명화가로 명성을 얻고자 이곳에 모여든 무명화가들의 그림과 조각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크다.

도빌과 옹플레르가 인공적인 손길이 더해진 곳이라면 알바트르 해안은 노르망디 지역의 자연을 상징하는 곳이다. 마치 코끼리가 몸을 바다 속에 담그고 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를 비롯하여 침식작용이 만들어 낸 갖가지 희귀한 모양의 바위와 절벽을 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최대 규모이다.

높이가 100미터에 달하는 낭떠러지가 끝없이 이어진 산책로와 하얀 돌로 가득찬 바닷가를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고기를 잡아 온 어부도 만날 수 있고 언덕 위에서는 몇 해 전 우리네 TV광고에도 등장했던 정겨운 교회와 소박한 마을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노르망디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곳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리는 결정적인 상륙작전이 벌어진 장소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현장 증명이라도 하듯 노르망디 해안 언덕 위에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모인 박물관과 무명용사탑이 지금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쳤던 해변을 응시하고 있다.



07



06

- 06 노르망디 해안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
- 07 옹플레르 갤러리에 전시된 다양한 풍경화.
- 08 프랑스 회화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진 옹플레르 갤러리에 전시된 조각.
- 09 중세 때 프랑스에서 가장 큰 항구였던 생 말로의 당시 건축물.
- 10 도빌 해변에서 승마를 즐기는 시민.
- 11 과거 부호들이 거주했던 생 말로의 도심골목으로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 12 고급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도빌 요트 하버.



08



09

드라마틱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브르타뉴 지방에 이른다. 프랑스이면서도 영국과 웨일스 문화가 강하게 배어 있는 브르타뉴 지역 또한 볼거리가 즐비하다. 각 고을마다 독특한 문화가 숨어 있는 브르타뉴 최고 명소는 생 말로(St Malo)이다. 대서양과 랑스강이 만나는 지점에 터를 잡고 있는 생 말로는 중세 때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

프랑스 내륙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관문이었던 생 말로는 프랑스가 영국에 앞서 캐나다 동부 지역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곳이자 정부에서 인정했던 해적의 본거지로도 유명하다. 1534년 생 말로에서 출발한 프랑스 탐험대는 캐나다 동부 지역인 세인트 로렌스 강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의 퀘벡 주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주도인 퀘벡을 발견한 탐험대는 차츰 내륙까지 탐험하면서 드넓은 식민지를 갖게 되었다. 물론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벌인 전투에서 패하면서 모든 권한을 영국에 넘겼지만 지금도 퀘벡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어를 사용하고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생 말로하면 한번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해적이다. 17세기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는 해적들을 인정해 주었다. 아마도 정부차원에서 해적을 인정하고 옹호한 나라는 인류역사상 프랑스가 최초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외국 선박과 선원에 대해서만 약탈이나 공격을 인정한 것이다.

지극한 어느 곳보다 볼거리가 많은 프랑스지만 대서양과 접해 있는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지방 만큼 흥미로운 곳도 드물다.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부터 전쟁과 해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멋진 풍광의 깊이를 더한다.



10



11



12

‘세컨드 라이프’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라

김정훈 / 과학동아 기자

3차원 가상현실 ‘세컨드 라이프’(www.secondlife.com)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월 미국광고연맹은 2006년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세컨드 라이프를 꼽았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터넷 트렌드인 ‘동영상UCC(사용자 손수제작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삼성SDS의 김인 사장은 세컨드 라이프를 직접 시연해본 뒤 전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인터넷이 생활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경험했다”며 “틈을 내 세컨드라이프에 방문해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언론을 통해 IBM이 세컨드 라이프에 매장을 열었다거나 ‘미국 대선주자인 힐러리 진영이 세컨드 라이프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는 등의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 감이 잘 잡히지는 않는다. 이미 국내에 차고 넘치는 3D 온라인 게임과 뭐 다를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그것도 “현재 웹브라우저의 HTTP를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새로운 개념의 오픈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 세계를 최대한 그대로 온라인에 옮겼다.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매트릭스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같다. 물론 매트릭스처럼 목 뒤쪽의 연결 장치로 세컨드 라이프에 접속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캐릭터를 조작한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세컨드 라이프가 역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게임 ‘심즈(The Sims)’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비록 화면 속의 가상현실이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현실처럼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고 범죠포도 일어난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자기가 산 땅에 멋진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곳에서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자유다.

세컨드 라이프를 운영하는 린든 랩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래픽 툴을 제공할 뿐이다. 사용자가 만든 물건으로 세컨드 라이프의 세계가 만들어져 간다는 점에서 UCC와 일맥상통한다. 사용자가 만든 물건들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통용되는 화폐 린든 달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린든 달러 실제 달러로 교환 가능

2003년 세컨드 라이프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 린든 달러는 단지 가상현실 속의 화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공식 사이트는 물론 각종 경매 사이트를 통해 실제 달러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은 매일 변하지만 약 270 린든 달러를 현실 세계의 1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고 한다.

린든 랩의 수익원은 세컨드 라이프 세계의 토지 사용료다. 세컨드 라이프 이용은 무료지만 자신의 땅을 가지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홍보를 목적으로 세컨드 라이프의 공간을 빌리는 기업에게도 동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사의 신상품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주도해나가는 세컨드 라이프는 2006년 10월 100만 명이었던 회원수가 2006년 말 200만 명, 올해 5월 현재 630만 명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현재 매일 3만~5만 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완전한 자유, 양날의 검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미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도박 사이트들이 대거 세컨드 라이프에 몰려들었다. 통제가 없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는 각종 불법 거래의 장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음란물이 노출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은 세컨드 라이프 내 도박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불법 사



실이 밝혀지면 세컨드 라이프의 100% 자유도에 통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린든 랩도 미성년자를 위한 ‘틴 세컨드 라이프’를 운영하는 등 지구책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자유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쉽게 싫증을 낼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스스로 즐길 거리를 찾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또 하나의 사회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세컨드 라이프의 완전한 자유도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 가능성은

현재 린든 랩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하고 올해 2분기 중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린든 랩 코리아 김울 지사장은 “우리나라는 세컨드 라이프를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첫 번째 국가”라며 미국 본사가 한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미국 본사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깔린 고속인터넷 환경과 우수한 그래픽 개발자가 많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세컨드 라이프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한국 인터넷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적수가 없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즐기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 그래픽 수준이 높고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03년에 만든 세컨드 라이프의 그래픽이 한껏 높아져 있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세컨드 라이프가 한국 시장에 안정적인 정착하고,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성공한다면 인터넷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 문자 기반의 컴퓨터 환경이 그래픽 기반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가상현실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될 세컨드 라이프든, 국내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3차원 가상현실 서비스든 미래 인터넷에 미리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산채, 막국수, 마늘밥, 농치고 싶지 않은 6월의 별미들



최갑수 / 여행작가

6월은 애매한 때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다. 그 어중간함이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빚어 입맛을 다시게 한다. 6월은 나물이 가장 맛있을 때다. 나물하면 3~5월이 제철이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 6월에 오르는 나물이 제 맛을 낸다. 나물은 산자락에서 나는 것이고 산은 강원도에 많다. 강원도 산골짜기는 6월이 되어야 비로소 봄이 깊어진다. 이 시기에 나는 나물은 두릅, 곰치, 개두릅, 나물치, 넘치, 종이치, 청옥치, 곤드레 등이다. 4~5월에 나는 나물에는 쓴 맛이 약간 배어있지만 6월에 나는 나물은 쓴 맛이 없고 달다. 조물조물 무쳐낸 싱싱한 나물로 가득찬 상을 상상해 보시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입맛을 당기는 건 싱그러운 풀맛이다. 초여름 무렵이면 이 땅 어디에서나 푸릇푸릇한 나물이 올라온다. 곰취, 다래순, 망초대, 삼잎국화, 참나물.....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나물들이 산구석구석까지 지천으로 깔린다. 때맞춰 우리네 식탁도 풍성해진다. 나물 한 두 가지는 상에 오르기도 마련이다.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면 풀죽어 있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나물이란 것이 묘해서 처음 입안에 넣으면 풋풋한 맛이 가득 퍼지다가 그 다음에는 텁텁하고 씹살한 맛으로 변한다. 조금 더 씹다보면 부드럽고 새콤한 맛이 따라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소한 맛이 남는다.

산채음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맛볼 수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사찰이나 풍광 좋은 계곡에 자리 잡은 음식점의 대표메뉴는 '산채정식' 혹은 '산채비빔밥'이다. 이

는 아마도 산채란 것이 별다른 요리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채 요리법이야 날 것으로 혹은 살짝 데쳐 참기름이나 들기름, 고추장 같은 양념을 더하는 것이 전부다. 결국 산채 맛의 대부분은 산나물 자체에 의지하는 셈이다. 여기에 손맛을 더하는 정도랄까?

우리가 맛보는 산채정식의 상차림이 대부분 비슷하네, 지역마다 나오는 산채의 가짓수와 곁들여 나오는 산채 이외의 것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전라도 쪽을 살펴보면 취나물, 고사리, 들나물, 무침 등 나물 10여 가지와 함께 된장찌개가 오르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라도답게 돼지고기 수육과 홍어회 등이 함께 나오며 또 폭삭한 대어섯 가지 젓갈이 오르는 것이 이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에서는 봉화 청량사 앞 등이 맛있는 산채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데 양념이 다소 세고 짙은 편이다. 목이버섯과 석이버섯 등 버섯 종류가 많이 나오며 매운 무침류의 나물이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충청도 쪽은 덕유산 자락 수덕사 앞이 유명하다. 수덕사 앞에는 현재 50여 산채정식 식당이 성업중이다. 산채의 가짓수는 10여 가지인데 더덕구이가 푸짐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강원도에서는 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평창이나 진부, 정선, 횡성 등에서 풍성하고 흐뭇한 산채요리를 맛볼 수 있다. 어딜 가나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 상에 오르는 나

물의 수도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한 상에 30여 가지의 찬이 나오는데 나물이 대부분이다. 강원도 중에서도 산채정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은 평창이다. 그 중에서도 월정사 입구에 자리한 여러 산채집들이다. 오대산이 자리한 평창은 평균 해발 700미터의 고지대. 나물들이 자라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오대산 자락에서 곰취, 고달비, 개두릅, 참나물, 참두릅, 누리대, 곤드레, 당귀 등이 지천으로 자란다. 이곳에서 맛보는 산채정식은 그야말로 산채만의 성찬이다. 산채정식을 주문하면 산나물만 35가지 정도가 올라온다. 나물 외에 곁들여지는 음식은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두부 정도다. 젓갈은 단 하나, 강원도답게 오징어젓갈이 올라온다. 커다란 상 하나가 빼곡하게 들어차는데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오는 듯한 느낌이다.

상에 오르는 나물은 고추장을 넣어 무쳐 붉게 보이는 것과 푸른나물, 간장에 담가 진갈색으로 보이는 세 종류다. 고추장에 무친 것은 새콤하고 맵사한 맛을 내고 푸른나물은 생쾌한 맛을 낸다. 그리고 갈색류의 나물은 고소하면서도 쫄깃하다.

밥 한 숟가락에 나물 한 가지씩만 맛보아도 금세 밥공기가 빈다. 젓가락이 가지 않은 나물 접시도 있다. 이때는 비벼 먹게 최고다. 커다란 대접에 밥과 남은 나물을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얹어 쓱쓱 비벼면 맛있는 산채비빔밥이 완성된다.

6월이면 술을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다. 이 무렵이면 시원한 국수 생각이 절로 난다. 더위를 가시는 데는 메밀국수가 최고다. 메밀은 찬 기운을 가진 음식이다. 몸의 열을 몰아내준다. 메밀국수로 유명한 곳은 봉평이다. 봉평의 메밀국수집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누구나 싼값에 메밀국수 한 그릇을 맛볼 수 있다. 국수는 메밀가루와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적당히 섞어 뽑는다. 이렇게 뽑은 국수를 양념과 식초 섞은 육수에 시원하게 말고, 그 위에 흰깨를 뿌린다. 그리고 채 썬 오이를 한줌 얹어 낸다. 국수발을 후루룩거리다 간간이 시원한 육수를 들이켜노라면 피로가 싹 달아나는 것만 같다. 국수집에 따라 열무김치 국물이나 동치미국물을 육수 대신 쓰기도 한다.

메밀은 그 옛날 목이나 부침개를 만드는데 많이 쓰였다. 옛 사

람들은 메밀을 맛돌에 갈아 목을 빚고, 부침개를 부쳤다. 메밀 부침개는 약간 쫄쫄지만 맛이 담백하다. 목은 보송보송한 느낌을 준다. 이 두 먹을 거리는 평창 사람들의 평범한 별식이었다. 요즘도 음식점에 따라 메밀묵이나 부침개를 내주기도 한다. 메밀국수 맛을 제대로 보려면 봉평장으로 나서야 한다. 봉평장에는 메밀국수 집들이 약 스무 곳 자리잡고 있다. 조선간장과 메밀 삶은 물에 만 국수가 시원하면서도 고소하다. 메밀국수를 먹다보면 음식이 사람을 닮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망송맹송하고 아무런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재료의 맛을 십분 살린 정직한 음식. 메밀국수는 강원도 사람의 순박하고 정직한 품성을 닮았다.

6월 하면, 단양 마늘을 빼놓을 수 없다. '강남의 꿀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나 식물이 풍토에 따라 달라짐을 뜻한다. 마늘 역시 마찬가지다. 단양에 오면 단단하고 여물어 맛 좋기로 유명하다.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석회질과 점토함량이 많은 토양과 큰 일교차가 단양마늘을 빚었다. 흔히 6쪽마늘이라 부르는 단양마늘은 단단히 여물어 남도마늘이나 대서마늘에 비해 크기가 3분의 2 정도로 작다. 향이 강하고 매우며 저장기간도 길다. 6쪽마늘은 하지(6월 22일) 직후가 제 맛이 난다. 그 이전에 캐서 유통되는 것은 단양 6쪽마늘이 아니다. 단양에 가면 마늘 요리 전문식당이 서너곳 있다. 단양에 마늘음식이 탄생한 것은 1990년대 말. 미리 씻어둔 쌀에다 마늘, 은행, 밤, 대추, 콩, 팥, 고구마 등의 재료를 넣고 고깔 모양의 뚜껑을 덮어 지어낸다. 여기에 마늘통튀김, 마늘샐러드, 마늘종무침, 마늘초절임 등 마늘 반찬 대어섯 가지가 오른다. 모두 마늘 냄새가 나지 않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마늘이 좋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 피를 맑게 해 파동기를 매끄럽게 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정력 증진에다 항암 효과까지 있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PC를 손바닥에

김충태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부장



Uren(이노월사)



센스Q1(삼성전자)



Vega(리온디지털사)

노트북컴퓨터의 무게에 고충 깨나 겪었을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UMPC' (울트라모바일 PC라는 휴대용 컴퓨터가 그것이다.

UMPC는 모니터 크기가 7인치 정도여서 여성 핸드백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 무게는 1kg도 채 되지 않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 초소형 컴퓨터로서 손색이 없다.

사실 많은 노트북컴퓨터는 무게가 꽤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4 kg이 넘는다. 말이 '노트'지 공책처럼 절대 가볍지 않다. 이것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니려면 결코 연약하지 않은 내 어깨에도 멍이 들 정도로 얼얼하다.

UMPC는 노트북컴퓨터 가운데 가장 작다는 10~12인치의 서브노트북보다도 작고 가벼우며, Windows XP를 OS(운영체제)로 채택하고 있어 특별히 사용법을 공부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회사에서 하던 작업을 들고 다니며 계속할 수 있다. 이동 중에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도 가능하다.

물론 크기로 따지면 보통 3인치에서 4인치의 화면을 갖고 있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가 더 작고 가볍지만, PDA/PMP는 Windows CE계열의 OS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수나 프로그램 호환성 면에서 아무래도 Windows XP보다는 불편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직 휴대성 면에서 PMP나 PDA를 선호하는 고객이 있지만, 동영상 코덱 지원, 시스템 안정성, 기능성 등 다방면에서 UMPC가 우세한 만큼 UMPC가 향후 PMP나 PDA 시장을 완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춘도 이런 추세를 예측한듯 2007년 인기를 끌 6대 IT 제품 가운데 하나로 일찍이 UMPC를 선정했다.

사실 UMPC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익히 들어 보았을 낯익은 이름이다. UMPC는 Ultra-Mobile Personal Computers

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초소형(Ultra) 휴대용(Mobile) 개인용 컴퓨터(PC)를 의미한다.

"1인 1PC 시대", "손안의 컴퓨터" 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동반하는 UMPC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오리가미(origami/일본어로 종이접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젝트 코드에서 이 용어가 탄생했다.

오리가미 프로젝트는 기존의 PMP와 같은 단순한 멀티미디어 재생장치에서 벗어나 무선 화상 기술 및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지털 라이프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젝트로 여기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UMPC였다.

세계 최초의 UMPC는 센스Q1으로 2006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세빗(CeBIT)'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이 제품은 자랑스럽게도 국내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만든 제품이었다. 이처럼 UMPC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주도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격이 50~60만 원대이다.

리온디지털사의 베가(Vega)는 국내에서 출시된 UMPC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제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터리 지속시간이 6시간이나 된다.

이노월사의 유렌(UREN)은 UMPC라기보다는 MAPC(Mobile Auto PC)라는 표현을 선호할 정도로 네비게이션을 내장하고 있어 차에 장착하여 네비게이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인디펜던트파이오니아의 IPBook은 고성능 CPU에 태블릿 에디션을 장착하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 제품으로는 일본 고진사의 SA 시리즈가 있다. 대부분의 UMPC가 크기와 무게를 줄이려고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반면 소형 키보드를 장착하고 스위블 형태의 터미널을 제공하여 화면이 180도 회전된다.

올해부터 소위 제2세대 UMPC가

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세대 UMPC인 센스Q2를 내놓았다. 센스Q2는 Q1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키보드의 부재, 적은 배터리 시간, 낮은 해상도 등 대부분의 문제를 개선했다. 여기서 보듯이 2세대 UMPC는 소형이라는 장점과 휴대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일반 데스크탑 PC와 같은 수준으로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요일 파견 나와 있는 경주 시내에 나가면서 마치 공책 한권 들고가듯이 한손에 가볍게 UMPC를 들고 나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해 보았다.

화면이 작아서 전체 화면을 보려면 스크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소형과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모든 불편함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한번 충전하면 5시간을 버티는 배터리 용량 덕분에 그곳에서 영화도 보고 워드작업도 하고 인터넷 메일도 체크하고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무실이 따로 없었다.



IPBook (인디펜던트파이오니아)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흐름을 읽고 그 길목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미가 열심히 일만 할 줄 아는 개미보다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도 그를 부러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숨가쁘게 살고 있다. 업무, 교육, 진로, 재테크 등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미처럼 정보를 선점하면 앞서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뒤 처지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회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전산화되면서 이를 잘 활용해야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정보화추진처는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직원들의 전산화 마인드 확산에 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신기술 파악과 습득 및 적용 등으로 더욱 더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보화추진처의 업무 중 관리행정분야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팀은 이름 그대로 관리행정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사업경영 정보시스템 (Corporate Project & Management

왼쪽부터 박균석 차장, 강현중 차장, 김용기 차장, 장명자 차장, 이광현 과장, 이진영 씨, 홍윤택 부장, 한윤희 차장.

Teamwork

장명자 / 정보화추진처 차장

정보화추진처 경영정보시스템팀



Information System, CPMIS) 업무와 포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종합사업경영정보시스템은 회사내 관리 행정분야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현업 부서업무의 요건을 수렴하고 조

정하며 시스템 통합, 기능개선사항 파악 및 기능보완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회계, 사업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인원정보', 사업개발, 사업계약, 사업운영 등의 사업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정보', 인사, 급여, 복지, 사내근로복지, TC, MH, 외부인력, 교육훈련 등을 관리 및 지원하는 '인사정보', 전표, 예산, 자금, 결산, 원가, 세무, 고정자산관리, 소모품관리 등을 관리 및 지원하는 '회계정보', 지적재산권관리, 전산자원관리 등을 관리 및 지원하는 '기타정보' 등의 업무 영역별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제안신청, 온라인교육신청, ITPMS, 설문조사, 복사관리, 신협 대출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과거 Host환경에서 C/S환경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한 후 십여 년 넘게 사용된 시스템이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업업무의 이해와 그 동안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Know-how는 차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최근 근평, 구매 및 계약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개선 제안과 2-in 1-out 제도로 인해 미뤄왔던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한 사업정보시스템의 재구축 작업은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통합 및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지향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통한 업무들의 전산화가 계속 추진 되어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바람직해 보인다.

포탈시스템은 많은 직원들이 그룹웨어시스템과 혼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포탈은 사내 전산시스템 사용을 위한 입구라고 보면 된다. SSO(Single Sign-On) 즉 Login을 한번만 하면 개인별 접근 권한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룹웨어(메일/게시/결재), CPMIS(종합사업 경영정보시스템), IPIMS, 자료검색, NSSS-EDB 시스템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메인 화면이다.

경영정보시스템팀은 팀장인 홍윤택 부장과 5명의 경영정보시스템 담당, 2명의 포탈 담당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윤택 부장은 설계전산화추진반에서의 업무기획능력 및 풍부한 경험으로 박학다식할 뿐 아니라 가정적이고 인자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팀원들은 나이와 입사일이 비슷하

여 업무협조가 잘 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여 토론의 장을 자주 열기도 한다. 작년 말 신입사원의 입사로 인해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나이순 직급순으로 따지자면 조금 빠른 MIS시스템의 베테랑인 김용기 차장은 팀 내에 제일 고참으로 꼼꼼한 일 처리와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통하며, 스포츠의 달인으로 한가지를 하면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포탈 업무 담당자인 박균석 차장은 산공항에서의 업무경험을 살려 전산업무 절차서 및 개발 지침서 등의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다양한 경력을 통하여 팀 업무 방향에 대해 조언을 잘한다. 종합사업기술처에 3년간 PMS업무로 파견 다녀온 강현중 차장은 2004년에 뒤늦게 팀에 합류해 개발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취미활동도 열심히 하여 인라인스케이트, 헬스 등등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고 간드러지게 부르는 노래실력도 수준급이다. 그 다음 본인은 MIS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회계 분야, 인적자원분야 업무를 두루두루 개발해 본 경험이 많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며 나이에 상관 없이 열정으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칭 팀 분위기 메이커이다. 최근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한운희 차장은 포탈 업무와 제도개선, 설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내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마당밭이며 늦게 결혼을 하고 얻은 예쁜 딸에 폭 빠져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이광현 과장은 회계업무의 베테랑이다. 또한 CPMIS 질의에 대한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거침없이' 처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의 막내 이진영씨, 31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본인과 인적자원분야 업무를 같이 하며 여성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신입사원답지 않게 업무에 빨리 적응하여 척척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큼한 이미지로 팀의 분위기가 한결 생기발랄하게 바뀌고 있다.

사내 관리행정분야 전산시스템은 회사 장기비전과 맞물려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보안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여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비록 지원이라는 업무가 열심히 일하고도 Output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지만, 팀원들 각각은 직원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하나 되어 세계최고 일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다짐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인다.



육지도의 바다

김성원 / 원자료사업관리실 김교상 부장 아들

비취색 보자기 풀어보네

소라 잔북 돌 멩게 따개비 참돔 흑돔에

털북숭이 성게까지

아

눈 시러 질긴 감아도

육지의 바다

알몸이 빗어낸

고해(苦海)의 절정

그대가 보내준 가이없는 포말

용알이 한마디 받아치지 못하는

살아 꿈틀대는 기록한 시간의 말씀

낙엽

박지현 / 초등학교 1학년, 원자로계통처 박원배 과장 자녀

낙엽은 사람이 밟으면

아프다는 것 같이 바스락 소리를 내지요.

낙엽은 사람이 주으면

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바스락 하고 속삭이지요.

하숙집 엄마

양복연 / 환경기술실 과장

정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엄마는 하숙을 시작하셨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며 사시던 부모님께서 도심으로 이사 나오신 건 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쯤이었다. 하지만, 농사일밖에 모르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막노동부터 시작하신 아버지를 도와 우리 육남매를 키우시기 위해 엄마도 하숙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항상 큰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다. 엄마는 하숙할 방이 많은 집으로만 이사를 다니셨다. 많을 때는 20명 정도의 하숙생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식구만 8명에 하숙생이 20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챙기는 일은 이루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집 밥솥은 가정용이 아닌 식당용 밥솥이었다. 언제나 잔치집에서나 볼직한 큰 상을 두개씩 퍼서 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다. 아니, 하숙생들이 밥을 먹고 나야 우리집 식구들이 밥을 먹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엄마는 집안청소를 하시고 점심이 오기 전에 늘 하시는 일이 있으셨다. 빨래…….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서 늘 손빨래를 하셔야 했다. 겨울이면 몇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손이 시뻘게지도록 그 많은 빨래를 하셨다. 그걸 보며 난 어른이 되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세탁기를 사드리겠노라고 다짐했었다. 빨래가 끝나면 점심 챙기시고 치우시고, 시장보시고 오셔서 저녁 차리시고 치우시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갔다.

어릴적 난 엄마가 가게 심부름 시키는 것이 정말 싫었다. 그렇게 하숙생이 많아도 언제나 살림살이는 빠듯했는지 엄마는 가끔 나에게 외상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다. “가게에 가서 엄

마가 나중에 돈 준다고 하고 간장하나만 사와.” 하지만 막상 가게에 가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 찢쩍대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생일날에는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생일날 난생 처음으로 사드린 것이 바로 ‘간장’이었다. 그때 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간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릴 때는 마냥 사람이 많고 하숙생 오빠들이 귀여워해주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가고 나도 커가면서 하숙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나마 언니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들과 함께 방을 쓸 수 있었지만 언니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가 나에게 독방을 주실 리 없었다. 난 부모님과 함께 방을 써야 했고 장가 안간 오빠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 고3때의 일이었다. 엄마는 언제나 고단한 하루일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와보면 엄마는 언제나 주무시고 계셨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아 공부를 해야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오빠를 피해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책을 펴고 앉았는데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오빠가 짜증을 냈다. “알았어. 미안해!” 난 얼른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그 날은 참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 친구들 엄마는 고3인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식도 챙겨 주시는데, 엄마는 하숙생 오빠들만 신경 쓰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엄마도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셨으리라.

엄마의 하숙생에 대한 마음은 남달랐다. 하숙생 하면 그저 돈 내고 집에서 밥 먹고 잡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집 하숙생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집 하숙생들은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건 엄마가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들 처음에는 좀 어색해 했지만 곧 적응했다. 그때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잘 알지 못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했던가.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우리집에는 항상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엄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다독거리 주셨다. 사고치는 하숙생들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 다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때론 꾸짖기도 하시고, 사정이 어려우면 하숙비도 받지 않으시고, 졸업하면 취업걱정, 결혼걱정, 하숙생들 집안문제 등등……. 마치 자식처럼 아니 내가 늘 서운했던 것처럼 자식보다도 더 신경 쓰셨다.

그동안 우리집을 거쳐 간 하숙생만 해도 몇백명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잠시 머물다 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 신입생때 우리집에서 하숙을 시작해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몇 년씩은 우리집 식구로 지낸다. 군제대하고 복학하는데 집에 빈방이 없다고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거실에서 자면 돼요” 하며 무작정 들어오는 오빠들도 여럿 있었다. 본인이 졸업하거나 군대가면서 빈 자리가 생기면 친구나 후배를 데리고 와서 언제나 빈 방이 있을 거를 없었다. 졸업하고도 가까이 살면 오며가며 집에 들르고 결혼한다고 여자친구 데려와 인사시키고 애기 낳았다고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유학 간다고 인사오고 취업했다고 오고 정말 집안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명절이면 친척들보다 하숙생이었던 오빠들 손님이 더 많을 정도이니까.

우리집이 다른 하숙집에 비해 다른 점 또 하나. 종갓집 만머느리로 평생을 살아오신 만큼 손도 크시고 음식도 잘하셔서 처음 하숙생이 들어와 밥람에 적응하려면 한달은 걸렸다. 옛날 분들이 말하시는 ‘스랭 국그릇이 우리집은 밥그릇이다. 어느집 밥그릇에 비하면 2~3배는 될 듯한 그 그릇에 밥을 소복하게 담아주시곤 먹고 더 먹으라고 하신다. 보통 20가지가 넘는 반찬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따뜻한 밥을 지어주신다.

“엄마는 밤 잘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어느 학생은 밥 소문 듣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정 방이 없어서 못오는 사람도 와서 밥만 먹는 학생도 있을 정도였다. 엄마는 늘 하숙생들에게 집에서 먹는 것처럼 맘껏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결혼하기 전 신랑을 데리고 갔을 때도 엄마는 한그릇 가득 밥을 주셨다. 신랑에게 잘 보이려면 무조건 주시는 밥은 다 먹어야 한다고 미리 말해 놓은 터라 신랑은 꾸역꾸역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결국 소화제 먹어야 했다. 그 다음부터는 처갓집에 갈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끼는 굶고 간다.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까마득한 오빠들이었던 하숙생들이 나와 같은 연배에서 이제는 한참 아래인 학생들로 바뀌었다. 엄마 덕에 나도 하숙생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녀석들도 나를 친누나처럼 대한다. ‘누나 저 오늘 여자 친구랑 헤어졌어요. 술한잔 사주세요’ 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녀석들도 있고, 여자친구 소개시켜 달라는 녀석도 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엄마의 하숙생에 대한 마음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 육남매가 모이면 언제나 집이 시끌벅적 하지만 이젠 모두 시집장가 가서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집에는 엄마, 아빠만 남게 되신다.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날짜가 맞지 않아 주말에 미리 가족모임을 하고 나면 정작 당일에는 두 분만 계실 때도 있다. 하지만, 결코 두 분만 계시는 건 아니다. 하숙생들이 꽃도 직접 달아드리고 생일케이크도 사다 노래도 불러드리니까. 그럴 때면 그 녀석들이 함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에게 그 녀석들이 또 다른 자식이듯 그 녀석들에게도 엄마는 제2의 부모인 것 같다.

이젠 연세도 있으시니 하숙 그만하시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면 엄마는 늘 그렇게 할 일 없이 적적하게 지내는 건 싫다하신다. 언제나 집안이 사람으로 북적이는 걸 좋아하시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거두며 사시는 것이 엄마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하숙집 아줌마’가 아닌 ‘하숙집 엄마’로 살고 계신 게 아닐까?

돈이면 안되는게 없는 이 세상에서 나또한 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게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FIDIC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최양규 / 플랜트사업개발처 차장

지난해 9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전세계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업계의 최대 협력단체인 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FIDI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정기 총회에 참석하였다.

FIDIC은 지난 1913년 세계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업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창립된 기관이다. 현재 세계 76개국 엔지니어링 관련기관이 가입 및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82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전신인 한국기술용역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주요업무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국제표준 계약자료를 수립 및 발간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FIDIC 조직은 회장이 속한 총회와 집행위원회, 감사,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엔리코 빈크외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회장은 2년 임기로 현회장은 멕시코 엔지니어링협회를 대표하여 멕시코의 조지 디아즈 파딜라가 담당하고 있다.

2006년 FIDIC 총회는 'Where the roads meet'의 주제로 컨설팅엔지니어링의 장기전략 계획, 변화와 새로운 도전속의 운영, 변화하는 관리자로서의 컨설팅엔지니어, 발주처에 대한 전통적인 엔지니어의 역할, 발주권한의 변화, 엔지니어링의 미래 등을 다루었다.

컨퍼런스는 인공적구축과 자연적환경간의 중요한 모든 연결점을 공급하는 컨설팅엔지니어사와 그 협력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컨설팅산업의 공헌을 검토하였다.

산업계, 비정부기구, 정부 및 정치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의 기초연설 및 총회포럼은 세계화의 시대에 오늘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도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프로젝트 조달시스템의 발전을 고려하여 인프라구축의 조달에 포함되는 순수한 지적 서비스부터 상업적, 운영적, 관리적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컨설팅엔지니어업계 및 고객간의 적절한 대처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미래에는 소유구조, 회사규모, 기술범위, 전문성 개발, 젊은 엔지니어 참여, 연속기획 등이 컨설팅업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많은 대규모 국제회사들이 합병 등을 통해서 신규시장에 진입하고 발주자는 컨설턴트의 선택폭이 좁아져 동일사업에 경쟁하는 업체의 감소로 컨설턴트의 보수는 증가한다고 보았다.

발주자는 다양한 실체로 복잡하게 얽혀진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프로젝트 투자의 마지막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단일협력사를 원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하여 동일 프로젝트팀에 다른 문화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그 팀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교육은 그 기술을 컨설턴트에게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컨설턴트는 엔지니어처럼 실제적인 설계의 수행보다는 재원을 관리하는 확대된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컨설턴트의 변화를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프로젝트의 복잡성 증가, 세계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의 통합화, 전문기술 등 기술자원의 부족, 다양한 전문가적 지식 수요증대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금융·환경·엔지니어링·건설·운영·국제조직의 뛰어난 프로그램 관리 및 지도능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구축하는 효율적 의사 소통능력, 신뢰·혁신·위험관리 능력이 요구되며 발주자는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능력을 갖춘 자를 미래의 컨설턴트상으로 전망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총회로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변화해 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국제적인 흐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사는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은 다양한 상황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외부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관리기술처 임위동 차장 가족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추억

귀둥이, 남편과 함께 지은 우리 막내 태명이다. 남들과 비슷하게 결혼해서 13살, 9살 두 딸아이를 낳은 후 8년 만에 늦둥이를 가진 것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적 내성적인 큰 아이는 처음엔 띠 동갑인 막내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활달하고 약간은 수다스러운 둘째는 엄마가 늦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날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는 곳마다 소문을 퍼뜨렸다.

나부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요즘 늦둥이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기에 처음엔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했다. 딸과 아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이미 딸만 둘인데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했고 고령 출산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었다.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출산준비물을 하늘색으로 준비하라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뭐 로또 당첨됐어요? 라는 말로 의사 선생님은 날 웃게 했다.

그런 막내가 우리에게 온 지 4개월 만에 남편의 월성현장 파견근무 소식이 전해졌다. 중학교 입학 앞둔 큰애 때문에 주변에선 만류도 했지만 가족은 늘 함께여야 한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06년 8월말 우리는 이곳 경주로 오게 됐다. 사택은 여러 달 비어 있어서인지 청소할 곳도 많았고 곰팡이 냄새가 좀 났다. 하지만 회사의 배려로 도배와 장판이 새로 되어 있었고 안방을 아이들방으로 꾸며주었더니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생각보다 잘 적응해 나갔고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가까운 유적지로 소풍을 나간다.

‘동방에서 아침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땅’을 의미하는 서라벌(경주의 옛 이름)이라는 이름대로 최고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한 이곳 경주에서 우리 가족은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정미란 / 임위동 차장 부인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 위의 레닌(AM. 게라시모프) / 1999 / oil on canvas / 250 x 200cm

잊을 수 없는 기억: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러시아인 페인팅

거꾸로 된 그림'으로 잘 알려진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38~)의 근작 '러시아인 페인팅' 시리즈(Russian Paintings, 1998-2002)를 소개하는 전시가 유럽 외에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7월 15일까지 열린다. 러시아인 페인팅이란 동독 출신인 바젤리츠가 자신이 보고 자란 과거 러시아의 미술과 사진을 원작으로 하되, 이를 작가 자신의 기억 속의 이미지로 재해석하면서 작가의 개성을 불어넣고 특유의 거꾸로 된 회화로 다시 그려낸 작품들을 통칭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금, 구동독을 경험한 작가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 미술과 바젤리츠 개인의 조형적 해석이 만나는 흥미로운 작품 시리즈가 될 것이다. 바젤리츠는 1989년부터 작품을 거꾸로 걸기 시작했는데 이후 "거꾸로 된 이미지는 더 잘 보일 뿐이며 곧바로 보는 이의 눈을 향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6년 독일 경제전문지 '캐피탈'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생존 미술작가 중 게르하르트 리히터, 부르스 나우먼, 지그마르 폴케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계미술시장에서 작품 값이 비싼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최전선에서 온 편지(라크니오노프) / 1998 / oil on canvas, 202 x 162cm



아카데미 회원 | P. 파블로프의 초상(M네스체로프) / 1999 / oil on canvas, 250 x 200cm

'고성장 잔치'는 끝났다

유병률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두뇌 집단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4%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예사로 봤던 7~8% 성장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성장률 1%포인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자리 수가 달라지고, 국민들이 손에 거머쥐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수년 전 같은 성장률은 다시 오기 힘든지 말해볼까 합니다.

성장률이란

성장률에는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성장률은 한 나라의 국부(國富)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통상 성장률이라 할 때의 성장률은 바로 이 실질성장률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4.4%라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작년보다 4.4%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마라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적정 속도'부터 확인합니다.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 보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지감이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잠재성장률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일정 기간동안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정의됩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실제 달성한 성장률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기록이 이 적정속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마라톤 대회 성적이 바로 실질성장률입니다. 마라톤 대회 성적은 날씨나 컨디션, 예측하지 못했던 불상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평균을 내보면 평소에 같고 닮은 자신의 적정 속도(잠재성장률)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실질성장률 평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성장률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왔다갔다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 괜히 욕심을 부려 이 적정 속도를 오버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탈이 납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과도하게 웃돌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이 적정 속도, 즉 자신의 진짜 실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한 나라 경제도 바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나라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 세가지입니다. 자본은 쉽게 말해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을 말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겠죠.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노

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같아도 산출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산성은 그 나라의 기술 진보나 제도, 정책 등과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성장률을 높인데 결정적입니다. 자본은 취약하고 사람은 많은 나라에서는 공장을 조금 더 짓고 남아 도는 사람들을 잘만 활용하면 10% 성장은 금방 아깝니까.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도 그랬습니다. 근면과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만든 새마을운동도 따지고 보면 노동의 투입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외자 도입에 열을 올린 것도 자본의 투입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재원이 없으니깐, 국민들의 근검절약으로 자본재를 외국에서 사들여온 것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1966~1990년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10.3%였는데, 이 가운데 노동의 기여분이 44%, 자본의 기여분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 크루그먼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군 기적에 대해 "영감(inspiration)이 아니라 땀(perspiration)에 의해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분명한 것은 이런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에서 90년대 6.3%로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5% 내외로, 지금은 4%대로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비록 '비관적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1996~2000년 5.7%였던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4.8%로 떨어졌다는 추정입니다. 한국은행도 2000~2003년 4.8%이던 잠재성장률이 비관적으로 볼 때 2004~2008년 4.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 5%의 성장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인플레이와 같은 과열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잠재성장률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 투입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외환위기 이전처럼 기업

들이 떠나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공장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코앞까지 닥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 투입량 증가율도 점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은 어떨까요. 생산성이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국가 경제가 재편될수록 국가적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도체 휴대폰 등을 이끌만한 신산업이 아직 안보입니다. 홈네트워크, 차세대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소위 차세대 성장 동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저성장을 하더라도 서서히 연속록을 사키면서 선진국과 같은 성숙한 경제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구조적 저성장으로 급속히 조로(早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80년대 3~4% 잠재성장률을 보이던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생산성

고령화와 기업의 내실위주 경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급격한 저성장을 막을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에 올인해야 합니다. 또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하는 개인과 더 좋은 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도 자본도 자연히 성장성이 높은 부문으로 모이게 돼 효율적 자원배분과 국가적 생산성 증대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투명성'이 필수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성장은 경제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그 생존 전략을 새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그렇듯, 개인들도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자기 혁신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스트레스

황세희 /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스트레스 안받고 살 순 없을까? 물론 없다. 좋은 일, 굿은 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건은 스트레스 인자다. 스트레스는 잘 관리 쓰면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나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해친다. 현대인의 숙적인 스트레스! 피하는 대신 제대로 알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게 최선이다.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

어차피 받는 스트레스, 실제부터 알고 대처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지나치면 심신이 병들기 마련인데 특히 신경증(불안, 우울 등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과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심장·위장·대장 질병이 빈발한다. 혼란 스트레스 상황인 분노하거나 놀랐을 때 순간 가슴이 뛰고 소화가 안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신체 변화도 장기화되면서 결국 병으로 이어지는 것

따라서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즉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 마감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할 일은 많지만 자율권이 적은 사람, 직장(수입)이 불안정할 때, 야간 근무나 밤 당직이 잦은 직장인, 삶을 힘들게만 느끼는 사람 등은 자신의 객관적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해 보는 게 좋다. 통상 지난 1년간 스트레스 수치가 2백점을 초과하면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상은 단계별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도 단계를 밟는다. 일례로 스트레스의

주변으로 꼽히는 업무상과로도 처음엔 '내 일이 좋다'는 식의 만족에서 시작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에너지가 결핍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방치하면 두통·불면·피로 등 과로로 인한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에도 계속 과로를 하면 술·약물 등에 의존하고 질병에 걸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치료도 단계별로 접근하자

스트레스는 불안·초조·두통·소화불량 등 증상→증상에 대한 두려움→증상악화 등의 단계를 거쳐 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괜스레 마음이 불안·초조·우울한 것 같을 땐 운동·취미생활 등 삶에 기쁨을 주는 요인을 즉각 가미하는 일상생활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한다. 두통·위장장애·식욕부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황까지 방치했을 땐 위장약·진통제·항우울제 등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문가로부터 인지행동요법 등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만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증이 심할 땐 아무런 원인 없이 위가 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병으로 인한 공포심을 덜어야 한다. 자신이 모든 일을 떠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났다면 내가 없어도 별 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치료는 초기 단계에 시작할수록 치료기간도 짧고 효과도 높다.

● 스트레스 요인과 점수 ●

자식 사망(74), 형제자매 사망(60), 결혼(50), 결혼 약속(44), 유산(36), 임신(37), 입학이나 취직 실패(37), 가출하거나 군대 간 자식의 귀가(36), 새로운 가족의 등장(36), 시댁이나 처가·일가친척과의 불화(34), 학업의 시작이나 중단(34)



평상시 관리가 중요

우선 스트레스 요인은 분산해야 한다. 일을 몰아서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평상시 걱정거리·과로 등에 처하면 매번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혀 실천해야 한다. 이때 복식호흡, 근육이완요법, 심호흡 등이 권장된다. 특히 복식호흡은 매일 식후 10분씩, 잠자리에서 한 번 등 네 번씩 하는게 좋다.

근육이완요법이란 왼발→왼다리→오른발→오른다리→오른팔→얼굴→왼팔 등 온몸의 근육을 돌아가면서 몇 초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기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취미 생활, 규칙적인 운동, 가족이나 친구와의 잦은 대화 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우선 부모는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란 말부터 삼가야 한다.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스트레스 역시 적절하면 생활의 활력소로, 지나치면 심각한 질병 촉발제로 작용한다.

어린이는 특징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뚜렷하다. 어른처럼 적절한 탈출구를 못찾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증상이 복통, 두통, 불면증, 신경질 등. 때론 스트레스와 무관해 보이는 기침, 구토, 열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이가 정서적, 성격상, 행동 등에 문제가 있을 땐 기존의 문제점이 악화돼 나타난다. 예컨대 평상시 눈 깜박거림 정도의 틱*이 있던 아이라면 발표회 때는 틱이 심해져 노래도 못부르고 내려올 정도다.

따라서 아이가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땐 피병으로 몰지 말고 아이의 스트레스 원인 파악과 해결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 역시 자녀에 대한 파악.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부모는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최고가 되라'고 늘 경쟁심을 부추기는 상황은 큰 스트레스다. 따라서 아이에게 '경쟁은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늘 이길 수는 없다'는 식의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

아이에게 긴장된 상황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이를 100m달리기를 막 끝낸 힘든 상황(스트레스)에 노출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학습을 시켜도 집중력, 인지력 등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 틱(tic : 프) :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이다. 주로 얼굴, 목, 어깨에서 나타난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며 잠시 동안은 참을 수 있지만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되고, 의지만으로는 억제하기가 힘들다. 잠을 자면 없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틱은 일시적인 것으로 1~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1년 이상 틱이 지속되어 만성이 되었거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치료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한다.

알파 걸, 그녀들의 도전

오윤현 / 시사저널 기자



누나, 누나도 직장에 다닌 지 꽤 오래 됐지? 결혼하고 나서였으니까, 이제 한 20년쯤 되었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어려움이 꽤 많았을 걸. 그런데도 20여 년을 꿋꿋하고 당당하게 견뎌낸 걸 보면, 누나도 여학생 시절 '알파@ 걸'이 아니었나 싶어. 알파 걸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엘리트 소녀'라 할 수 있지.

어원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덴 킨들러가 1999년 발행한 책에서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들을 '알파 걸'이라 명명했지. 굳이 알파@를 내세운 이유는 간단해. 알파가 그리스어의 첫째 자모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알파 걸이란 '첫째가는 여성'이라 할 수 있지. 어찌 보면 이전의 '슈퍼우먼' (모든 역할을 다 하려는 여성)이나 '워킹 맘' (일하는 여성)과 비슷해 하지만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 게다가 알파 걸은 재능 있고 욕심이 많고 자신감이 있으며, 여자라는 사실에 전혀 제약받지 않아. 또 남녀의 역할, 지배와 복종 같은 전통적인 사회 구도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지.

그렇다고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봐서는 곤란할 것 같아. 부모 세대와 달리 여권 신장이나, 여성 상위를 크게 외치지 않거든.

스스로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 여기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밑거름으로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설계할 뿐이지. 킨들러 교수에 따르면, 그들의 장래 희망은 주로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우주 비행사 등이야. 희망 모델은 힐러리 클린턴, 칼리 피오리나,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유명 여성들이고. 재미있는 사실은 알파 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점이야. 알파 걸의 원조쯤 되는 워킹 맘·슈퍼우먼·골드 미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자,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소녀들이 알파 걸이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한 것이지. 그러니까 알파 걸은 현대 여성들의 활약상을 적극 반영한 단어라 할 수 있어. 누나도 알다시피 요즘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 미국의 예를 들면, 2004~2005년에 전체 학위 취득자의 59%가 여자였어. 미국 연방회의의 여성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도 1971년에 각각 4명·28명이었는데, 2005~2007년에 각각 14명·70명으로 부쩍 늘어났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미 여성 국무총리가 배출되었는가 하면, 여성이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있잖아.

기업의 전문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부쩍 늘어났어. 1980년에 3.5%였는데 2005년에 17.5%로 증가한 거야. 사법연수생 중 판검사 여성 임용 비율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서

53.7%나 되고. 지난 2월 서울대 학위 수여식에서는 11개 단과대학의 최우수 성적 상을 여성들이 휩쓸기도 했지. 텔레비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어. 김주하·최윤영·오미희 아나운서의 활약을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알파 걸의 의미를 좀더 확대 해석해 이용하는 것 같아. '당당하고 잘 나가는 여성'을 알파 걸로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알파 걸의 인기를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알파 걸 마케팅'이라고나 할까. 가장 발 빠른 곳은 금융권이야. 벌써 '레이디 플랜저축예금' '행복일기' '명품 여성' '미인 통장' 등이 등장했다니까. 남성 모델이 주로 등장하던 금융 광고에도 알파 걸이 등장하고 있어.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여성 파워 시대에 당당한 여성 화자가 전달하는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잘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성 화자 특히 알파 걸들의 메시지가 부각되는 광고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어.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예 "앞으로 알파 걸을 잡지 않고서는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지.

사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이미 수많은 알파 걸이 등장했어. 얼마 전에 끝난 시극 <주몽>의 소서노가 대표 인물이야.

그녀는 과거 시극에서 자주 보던 여성상(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여성)에서 벗어나, 남성과 정면으로 맞서는 여성으로 나왔었지.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황진이> 같은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당당하면서 상냥한 알파 걸들이 다수 등장했었지.

그러나 알파 걸을 모두가 환영하고 반기는 것은 아니야. 일부 문화비평가들은 알파 걸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기도 해. 미디어가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 과잉 반응. 그들은 알파 걸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해. 기업과 정부의 고위직이나 사회단체, 미디어의 중요 직책은 아직도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거야. 알파 걸이라는 말이 각광받는 것 자체가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알파 걸이 탄생할 것 같아. 그만큼 여성을 규제하는 제도가 줄어들고,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킨들러 교수는 "미래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업하기 쉬운 시기가 온다"라고 말했어. 린아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누나가 그 에의 잠재력을 잘 발굴해 알파 걸로 만들기 바래. 그래서 누나처럼 당당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기 바래. 알았지?

더 멋진 날을 위해 또 달려보자고, 안녕!

한국표준형원전 세계 최고 인정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 3일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 안전점검단으로부터 약 3주간에 걸쳐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인 영광 5,6호기의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리퍼 IAEA 안전점검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통 원전 선진국의 원전도 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권고 및 제안사항을 30개씩 받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표준형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발전소 복구 2700만달러에 수주

한국전력공사가 5월 1일 나이지리아 액빈(Agbin)발전소 복구사업을 2700만달러(한화 256억원)에 수주했다. 액빈 발전소는 나이지리아 경제 수도인 라고스 동쪽 60km 지점에 있는 서부 아프리카 최대 규모 발전소(발전용량 1320MW)로 최근 보일러 폭발 사고로 2개호기(440MW)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일반-전문 건설업 내년부터 겸업 허용

지난 30여년간 유지돼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전문건설업체 역시 원도급업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없애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펀드 3300억 운용

금융 시장에서 민간 자금을 끌어모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졌다. 5월 20일 산업자원부는 국민은행의 주도로 시중은행, 보험, 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330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모 펀드가 5월 21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의 만기는 15년이며 조성된 자금은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민·관, 해외서 우라늄 함께 캔다

국제 우라늄 값이 급등하면서 해외에서 우라늄을 찾기 위한 탐사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우라늄 조사단’이 5월 3일 캐나다를 방문해 서스캐처원주 정부 및 이 지역 민간 기업과 우라늄 탐사 및 개발 방안을 협의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우라늄

조사단은 정부가 해외 우라늄 탐사·개발을 위해 지난 1월 구성한 ‘해외 우라늄 진출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이 태스크포스는 광업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SK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석모도에 세계최대 조력발전소 만든다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대규모의 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014년까지 강화군 석모도 해협에 발전용량 812MW급 조력발전소를 제3섹터방식(민간합동출자방식)으로 건립기로 하고 강화군, 한국중부발전(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광양제철 소수력발전소 기동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설한 소수력발전소가 5월 1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 24억원이 투입된 이번 소수력발전설비는 광양 수어댐에서 제철소로 공급되는 원수라인에 설치됐다.

핵융합 보조가열장치 개발중

지상의 인공태양으로 불리우는 핵융합 장치가 작동하려면 1억℃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가 필요하다.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것과, 1억℃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공학기술개발센터의 오병훈 박사는 핵융합 장치의 플라즈마를 1억도까지 올려주는 가열장치를 개발중이다. 국내 최초의 핵융합 장치로 올 8월 완공예정인 ‘KSTAR’에 장착되는 보조가열장치이다.

특수고객 전력정보 원격취득 및 자동통보시스템 개발

농장, 양어장, 아파트 등 특수한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전력정보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해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사용자에게 음성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한전기협회는 4월 27일 송암시스템과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특수고객 전력정보 원격취득 및 자동통보시스템을 개발,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산업화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최성민 교수팀은 수용액에 들어가면 서로 뭉쳐버리는 탄소나노튜브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최교수팀은 탄소나노튜브를 수용액에서 골

고루 분산시키는 이 새로운 기술을 재료과학 분야 최고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차세대 원전재료 용접기술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미래형 원전의 재료기술 향상과 핵심부품 및 기기 제조에 필요한 용접 및 접합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5월 11일 연구원 본관동 2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스팔트로 전력 생산

가스화발전의 원료가 다양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볼보그룹은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블랙 리커(Black Liquor)의 가스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유사 ERG는 미국 발전소 건설사인 포스터 휠러(Foster Wheeler)에게 IGCC 시설 확대 건설을 맡겼다. 2000년 포스터 휠러는 ERG의 550MW용 IGCC 발전소를 설계, 건설한 바 있다. 이 때 원유 정제과정에서 배출되는 잔류물, 주로 아스팔트가 합성가스로 전환돼 대량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이브리드차 니켈수소전지 개발

세방전지는 5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전지산업전에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니켈수소전지 실제 제품을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사용된 전지와 비교해 세방전지의 니켈수소전지는 동급 이상 성능을 갖추고 있다. 세방전지측은 “이번에 선보이는 니켈수소전지는 소형화와 함께 완전밀폐를 실현한 친환경 제품으로 기존 국내 제품에 비해 부피는 10분의 1, 중량은 6분의 1에 불과한 고에너지 밀도의 차세대 전지”라고 설명했다.

고분자기술 활용한 차세대 케이블소재 개발

LS전선은 최근 송전선의 열 처짐 현상을 대폭 줄이고 송전용량을 기존 케이블 대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인장선 개발에 성공했다. 새 기술은 인장선을 스틸 대신 고분자 섬유강화소재로 대체하여 기존 스틸 제품에 비해 열 처짐 현상을 10배 이상 줄였으며 무게는 70%에 불과하다.

서클 동 정

본사 인라인스케이트회 춘천대회 참가



본사 인라인스케이트회 '휘스'는 지난 4월 29일 춘천시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춘천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42km, 21km, 10km 등 3개 코스로 나눠 춘천 의암호변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3천500여명의 인라인 마니아들과 함께 쾌청한 날씨속에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과 봄바람이 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로드린을 즐겼다. 이번 춘천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5회 대회로 휘스는 제1회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본사 테니스회 기흥구청장배 대회 동조 우승



본사 테니스회(KTC)는 지난 5월 20일

열린 제2회 기흥구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에 은조에 2팀 동조에 3팀 등 총 5팀이 출전하여 김기혁 임홍균 조가 동조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기흥구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는 기흥테니스연합 주관으로 기흥구내 클럽 및 직장테니스회가 참가하여 매년 봄, 가을에 열린다. KTC에서는 테니스를 통하여 지역 테니스동호인과의 우의를 나누며 사내 테니스동호인들의 화합과 기량발휘를 위하여 기흥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 매년 참가해 왔다.

본사 산우회 바래봉 등반



본사 산우회는 지난 5월 26일 회원 및 가족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남원에 위치한 바래봉에 다녀왔다. 바래봉은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얹어놓은 모습과 닮은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바래봉은 지리산의 수백개 봉우리중 산 자체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다. 매년 5월이면 철쭉제가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올해에도 5월 27일까지 철쭉제가 개최되었다. 본

사 산우회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마감하며 아름다운 철쭉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산행을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도상승 때문인지 철쭉은 이미 지고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산행은 전북 학생교육원을 출발하여 세동치, 팔랑치, 바래봉, 안부삼거리를 거쳐 운봉주차장으로 하산하였으며, 약 5시간이 소요되었다.

본사 조우회 제2차 정기출조 다녀와

본사 조우회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안성의 고삼지로 제2차 정기출조를 다녀왔다. 고삼지는 영화 '섬'으로도 알려진 수도권 3대 저수지중 하나로 저수면적이 매우 넓은 반면 조황이 들쭉날쭉 하는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간간이 오던 비가 그친데다 버들가지가 잘 발달된 곳이 많고 수위가 상승하는 때라 그런지 28명의 많은 회원이 신청하였으며, 시작하기 전부터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삼은리에 있는 동그락섬 주변에서 개최한 대회는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처음에는 좀 실망스런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의 환경조건에 맞는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낚시의 본성이기에 섬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후 8치 봉어를 보고 좀 들

뜬 적이 없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질이 없는 찌를 바라보는 힘든 자리가 이어졌다. 힘겨운 시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다음 날 계획은 자로 제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기술처 이길수 차장과 플랜트사업운영팀 최영규 부장이 1등과 행운상을 차지했고 서로 "고생했어. 밤새도록" 한마디를 나누며 격려하였다.

인사 동 정

차장(책임급)

조덕제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김두일 · 기계기술처
윤주풍 · 전기기술처
정재훈 · 원자력기술처
임한송 · 배관기술처
이남훈 · 원자로계측제어처

사우에 경 사

결혼

▶기계기술처 장헌석
: 5월 5일 화곡동교회



▶원자력기술처 윤재화
: 5월 12일 인천청암감리교회
▶토목기술처 장종철
: 5월 19일 한전 대강당
▶전기기술처 서정엽
: 5월 26일 호텔리츠



▶배관기술처 천봉학 차장 장녀
: 5월 26일 용산 남산예술원
▶계측제어기술처 오홍일
: 5월 26일 리오웨딩홀

부음

▶기계기술처 고한중 차장 모친
: 4월 28일 부천 가톨릭대학 성가병원
▶원자로계측제어처 김정용 과장 장인 · 원자로계측제어처 정기훈 차장 장인
: 4월 29일 진주 정례식장
▶계측제어기술처 유이봉 차장 장인
: 5월 2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계측제어기술처 송수호 차장 장인
: 5월 6일 군산의료원
▶건축기술처 선영주 차장 장인
: 5월 6일 평택 인중백병원
▶원자력사업개발처 박중대 처장 모친
: 5월 7일 천안 단국대병원

▶기계기술처 이영식 차장 장모
: 5월 9일 부산 대동병원
▶원자로계측제어처 장익호 차장 부친
: 5월 14일 미국
▶원자력기술처 고희진 차장 부친
: 5월 18일 중앙대병원

참사량 봉사 단

플랜트사업단 요한의집 현장학습 도와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4월 24일 결연기관인 요한의집 원생들의 현장학습에 함께하였다. 용인시 한택식물원에서 있었던 이번 현장학습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참가원생들의 이동과 식사를 보조하고, 식물원 및 음악회 관람을 도왔다. 새봄, 식물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는 직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기운을 전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사과재배 농가 2차 봉사활동 다녀와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장수군

Inside Outside



장수읍 개정리 사과재배 농가 5곳의 사과나무 적과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동수 단장을 비롯하여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 56명이 참가하여, 사과 꽃과 열매를 따야하는 바쁜 농사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사과재배 농가에 긴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었다. 한편 5월 15일에는 특별히 신입사원 67명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위의 5농가와는 별도로 이한구외 6농가에서 적과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참사랑봉사단 교육용 PC 전달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참사랑봉사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일 평소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던 '선한사마리아원'에 컴퓨터 10대를 전달했다. 전

달한 PC는 회사 불용 PC중 선별하였으며 아이들의 학교 숙제나 학습정보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한사마리아원'은 1958년에 설립된 이후 기아, 미아, 고아 및 가정 해체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돼 왔다. 현재 23명의 직원과 85명의 아동들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보금자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다른 봉사팀 8명은 성심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올들어 처음으로 예초기를 사용하는 날로서 예전에는 2인대였던 예초기가 각각 한대씩으로 증가 배정되면서 살짝 긴장감을 불러 왔으나 모두들 불평없이 덤석 등에 짊어졌다. 처음 사용할 때는 돌을 튀기고 땅을 파헤치며 서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휴식 때는 팔이 덜덜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입에 대지도 못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배움의덕택에 훨씬 수월하고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동우회 동정

제36차 이사회 개최

동우회는 지난 4월 25일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국식당 '중월'에서 제36차 이사회를 장기옥 회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의건을 상정하고, 안시영, 조병

권, 권이영, 최용승, 조행훈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의결하였다.

골프회 시타회 개최

동우회내 취미모임인 골프회는 지난 3월 22일 안성골프장에서 2007년도 시타회를 개최하여 우의를 다졌다. 이날 경기 결과 장타상에는 김삼곤 회원과 정문권 회원이, 근접상에는 장기옥 회원과 박구원 회원이 선정되었고, 경기후 이평석 회원이 오찬회를 마련했다.

바둑회 바둑대회 개최

동우회내 취미모임인 바둑회는 지난 3월 23일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황재룡, 박동진, 정재관 회원이 각각 1,2,3,등을 차지하였다.

결혼

▶ 박홍익 차녀
: 4월 20일 홍콩

부음

- ▶ 박상복 장인 : 4월 9일 부산 대동병원
- ▶ 김용운 부친 : 4월 10일 충주시 충주장례식장
- ▶ 박상진 부친 : 4월 24일 서울삼성의료원

Movie

검은집
신태라 감독, 황정민·강신일 주연



전직 은행원이었던 준오는 보험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한 여자의 상담전화를 받는다. 며칠 후, 준오는 한 낯선 보험 가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문한 집에서 그 남자의 7살난 아들이 목 매달린 채 죽은 현장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은 아들보다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그 아버지 박충배의 눈길을 느끼고 경악한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지만, 죽은 시체의 부검결과와 모든 증거는 완벽한 자살로 입증된다. 그러나 타살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준오는 결국 보험금 지급보류 결정을 내린다. 매일 같은 시간, 보험회사를 찾아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충배.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눈빛을 한 그의 아내 이화, 또 다시 이어지는 연쇄 죽음과 또 다른 죽음의 흔적들속에 기록 보관실에 잠든 보험파일에 감춰진 비밀이 점차 드러나는데…….

Exhibition

웃기고 & 이상한
- 7월 22일 성곡미술관



애원전을 위트있게 의인화한 사진 작품이 눈길을 끄는 미국의 유명작가 윌리엄 웨그만의 국내 첫 전시. 사진은 물론 회화, 드로잉, 애니메이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 110점이 선보인다. 사진계 거장의 이름을 딴 애원전 '만레이' (바이마라너 종)가 녹색 잎사귀를 머리에 얹은 '녹색 베레모', 부서진 스티로폼에 앉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떠내려가다' 등 전시 제목처럼 작가의 익살과 재치에 웃음과 함께 무겁지 않은 심오함을 전달한다. 연하장이나 그림엽서를 붙인 뒤 확장해 그려나간 회화 작품들도 흥미롭다. 뾰족한 바위사진의 엽서 주위로 4개의 손가락을 그려낸 '손톱치료', 물방앗간 그림의 엽서가 작가의 비석까지 있는 넓은 정원풍경으로 확대된 '병든 웨그만' 등 작가는 익숙한 일상물이 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했다고 말한다.

Performance

댄싱 새도우
7월 8일 - 8월 1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사실주의 연극의 대가 차범석의 대표적 희곡 <산불>을 대형 창작 뮤지컬로 만들었다. 남자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여자들만 남아 번갈아 찾아 드는 태양군과 '달군'의 횡포를 견디며 살아가는 마을, 숲은 영혼들이 쉬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나쉬탈라는 순수한 영혼으로 이 숲을 수호하는 유일한 여인, 나쉬탈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 신다는 숲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다소 교활하고 관능적인 여인이다. 뛰어난 목수이지만 전쟁이 싫어 탈주한 솔로몬은 마을로 숨어든다. 나쉬탈라가 솔로몬을 숨겨주면서 둘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신다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를 유혹한다. 신다의 어머니이자 나쉬탈라의 고모인 마마아스터는 마을의 우두머리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영혼의 숲을 파괴하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마마아스터와 숲을 지키려는 나쉬탈라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데…….

틀린 그림 찾기



두개의 그림중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보내 주세요.

구성 : 권기수

편집자에게

'KOPEC 문에 - 소렌토로가는 길 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읽고나서 다시 보니 한기문에 수필부분 우수작이네요. 다음 한기문에도 기대가 됩니다. 오은정 / 사육이 전계희실

'건강 100세 - 우울증, 알고 대처하자' 를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 좀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효진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5월호 당첨자 및 정답



이성진 / 토목기술처 과장
임위동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오정혜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이향기 / 사업관리기술처

독자에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보에 대한 의견이나 신고 싶은 원고가 있거나 새로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Portal mail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Webadm@kopec.co.kr, 이원주 leewj@kopec.co.kr 031-289-3194, 한수정 flonej@kopec.co.kr 031-289-3023)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퀴즈 한마당에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는 매월 말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의 행복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얻은 것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므로써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띠울 일한 가지씩 하라.”

-미국의 대부호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버나드 쇼는 “행복이란 우리에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란 저절로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다.

“행복과 불행은 그 분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곧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불행도 현미경처럼 확대하여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진다.” 라고 라 로슈푸코는 말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를 행복모드로 바꾸어야 한다. “같은 꽃밭에서 꿀벌은 단맛을 빨아들이고 땅벌은 쓴맛을 빨아들인다.”는 영국 속담처럼 행복은 자신의 인생관에 달려있다.

“행복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내의 물건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로렌스 구울드의 말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족하려는 자세를 갖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삶에 대해 사람에게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일이다. 행복의 조건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복현 / 시인

